

주일학교 7학년 1과 (관계편)

부모님과 관계

이름 _____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현재 계시거나 과거에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각 사람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시기를 선택하셨을까요?(단, 아담과 이브는 제외-눅3:38) 부모라는 존재는 단지 아이들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역할만 할까요? 아니면 각 사람에게 부모가 존재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모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축복하시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1) 부모님은 양육해 주신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자녀들은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부모님의 돌봄과 양육을 더 오랫동안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캥거루 새끼(Joey라고 부름)는 태어난 지 10개월이 지나면 어미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 이후 8개월이 지나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새끼 곰은 2살 정도 되면 역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오리, 닭, 거위 새끼들은 알에서 깨어나면 자기 스스로 사물을 보고 걸을 수 있습니다. 새끼 홍학은 알에서 깨어난 지 3-4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동지를 떠납니다. (이쯤 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빨리 독립시키지 않으신 것이 감사하지요?) 파충류 새끼들(거북이나 뱀 등등) 알에서 깨어나면 어미를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떠났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부모들은 새끼가 알에서 깨어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몇 살쯤 되면 부모님이 제공해 주신 동지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들 중에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오늘 당장 여러분이 집을 나선다면, 얼마나 잘 살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누가 누구를 위해 제공해야만 하나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제공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제공해야만 하나요? (고후12:14)

나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제공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딤후5:4 이 구절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 자기 부모에게 효성으로 보답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 부모님은 아이들을 보호해 주신다.

12살 아이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는 일행중에 보이지 않았을 때, 그분을 걱정하며 애타게 찾았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눅2:42-45)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모든 소년을 죽이라고 했을 때, 누가 아이 모세를 걱정하고 보호하였나요?
(히11:23) 누가 베냐민의 안전을 걱정하였나요?(창42장4,36-38) _____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주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길에서 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얼른 여러분을 그 도로에서 끄집어 내주셨거나 혹은 큰 소리로 “차 온다! 얼른 피해!”라고 소리쳐서 위기를 모면해 주신 일들이 있나요?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해로움에서 지켜주시려고 애쓰시지 않았나요?

주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일을 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과 신자들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은 고아와 과부(아버지가 없는 사람들과 남편이 없는 사람들) 라고 자주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남편이란 위치가 가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약1:27, 사1:17, 렘7:6-7, 슥7:9-10)

3) 부모님은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교육하십니다.

에베소서6장4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에서는 우리는 우리를 훈육하고 바른길로 인도하며 때로는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바로잡아 주시는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이웃 사람들 까지 바른길로 인도하기에 충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히12:7-8)

자녀교육에서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의 행동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잠13:24) _____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그럴려면 자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 때 그것을 방관하거나 용인해 주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4) 부모님은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잠언22장6절에서 언급된 명령에 누가 순종해야만 하나요? 옆집 사람이요? 경찰관이요? 지역 정치인이요? 가게 주인이요? 또한 신명기6장7절에서 언급된 명령에 누가 순종해야만 하나요? _____ 신명기 6장7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이 가르침은 여러분이()를 할 때 일어나야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 | |
|------------------|--------------------------------|
| 1. _____ 집에 앉는다. | A. 잠잘 시간 |
| 2. _____ 길을 걷다. | B. 마음이 새로워지는 아침시간 |
| 3. _____ 눕는다. | C. 식사시간 |
| 4. _____ 일어나다. | D. 여행 시간(예를 들어 오늘 차에서 운전하는 시간) |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오직 _____으로 양육해야 한다. 여기서 훈계(Admonition)은 알파벳 “C” 로 시작하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변화(Change)- 아이들의 생활 가운데 바르게 고쳐져야 하는 문제들(예를 들어, 나쁜 언어사용)
2. 직면(Confrontation)- 아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직면해야하고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3. 관심(Concern)- 부모는 사랑으로 아이를 동기부여 하고 그 아이가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잘 자랄수 있도록 기꺼이 가르치고 때론 체벌까지 해야 한다.

5) 부모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이들은 모방의 천재들입니다. “그 아버지예 그 아들이구만!” 이런 속담은 부모가 어떤 본(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을 보이든지 그대로 아이들이 보통 따라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가요? (엡5:1, 요8:38-44)

6) 부모는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양육해라(bring up)”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5장 29절에서 “양육하라(nourish)”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몸을 양육하고 소중히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을 베푸십니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디도서2장4절에서 우리는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할 것을 배웁니다.

누가복음 8장 41, 42, 56절을 보세요. 죽어가는 이 소녀를 누가 진정으로 걱정하고 있나요? ___ 열왕기상 3장 16-27절에서 언급하는 흥미로운 사실인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아이를 걱정하였나요? _____

7)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기본 의무를 지키는 본을 보여줘야 한다.

아이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기본 의무는 무엇인가요?

1. 에베소서 6장1절, 골로새서 3장 20절 _____

2. 에베소서 6장 2절, 출애굽기 20장12절 _____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불순종과 무례함은 허용되어서도 용인되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제가 될 기초를 쌓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건강하고 좋은 가족단위는 건강한 사회로 가는 핵심요소입니다. 반면, 가정의 파괴는 사회의 무질서와 파멸을 점점 조장해 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의 상황을 지켜보면 그 상태가 점점 더 악화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가족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였나요?(막13:12; 눅21:16, 딤후3:2, 롬1:30) _____

오늘날 사회에서 가정의 붕괴의 지점은 어디에 있을 까요? _____

부모님은 성도들(교회)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건강한 가정은 튼튼한 교회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그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셨고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아내들(3:18), 남편들(3:19), 아이들(3:20) 그리고 아버지들(3:21)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22-6장4절을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4-5절에서, 장로의 자격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요? _____ 이 자격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_____ 만약 가정에 문제들이 있다면, 교회에도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인 가정과 개인들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볼 문제들

1.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야 하나요?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까요?
2. 당신의 가족을 더 튼튼하게 하기위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당신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들이 있나요?
3. 당신의 부모님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어디서 당신이 실패했나요? 어디서 가족들이 넘어졌나요?

주일학교 7학년 2과

왜 나의 부모님들을 그렇지 않은가

이름 _____

첫 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한 아이나 어린 사람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하는 다리입니다. 부모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자들, 보호하는 자들, 엄격한 사람들, 교사들, 본보기들이며 사랑을 주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1-4쪽 보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마땅히 보여주어야 하는 역할을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가 되는 대신에 그들은 때로 막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부모들은 그들이 당연히 돼야 할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집안에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까요? 나 자신의 집과 가족의 상황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거하는 집과 가족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만일 내가 어려운 가족 상황 안에 살고 있다면 그런 혼란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나은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지난 과에서 우리는 부모들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 바람직한 상황을 배웠습니다.:

[그림]

구원받은 아버지 구원받은 어머니

두 분 다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 안에서 우선시 함!

슬프게도 대부분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이상에 이르지 못합니다(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가 되지 못하고 언행도 원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인해 가능한 상황과 조건들이 다양하게 생겨났는데 그것이 당신의 부모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상황들과 조건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신이나 당신의 상황과 맞습니까?

[그림]

구원받은 아버지 + 구원받지 않은 어머니 고전 7:12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 + 구원받은 어머니 (벧전 3:1/고전 7:13)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와 어머니
홀 아버지 + 어머니 안 계심 --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병(병원 장기 입원)	아버지 안 계심 + 홀 어머니 --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병(병원에 장기 입원)	양쪽 부모가 안 계신 경우 ■ 사망 ■ 병 ■ 다른 이유 등

성경기록 안에는 부모와의 다른 상황들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벤자민은 그의 어머니를 안 적이 있습니까(창35:16-19)? _____ (그녀는 또한 요셉의 어머니였습니다) 요셉이 단지 ____살 이었을 때(창37:2) 그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이집트로 보내졌습니다(창37:28,36). 그의 친엄마가 유모였음에도 모세는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었고 이집트인들의 교육을 받았습니다(출2장). 사무엘은 그의 부모를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삼상2:19)? _____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의 아버지는 아내를 몇 명이나 두었습니까(왕상11:3)? _____ 에스더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에2:7)? _____ 예수님의 이복형 야고보는 그의 아버지(요셉)를 죽음으로 잃었습니다(이것은 아마도 야고보가 십대 마지막 즈음이거나 이십대 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적어도 여섯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을(막6:3) 알지만 이것 외에는 우리가 요셉에 대해 더 이상 아무 것도 듣지 못했으니 그가 죽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부모도 매우 연로하셨습니다(눅1:7).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딤후1:5;3:15). 그의 아버지도 같은 관심을 가졌습니까(행 16:1-그리스인=이방인)? _____

이들 중 아무 것도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에 부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들의 영적 건강과 인생에 관해서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질 수 있습니다.;

- A.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 B.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때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다.
- C.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 D.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구원받지 않음.
- E. 정기적으로 교회에 갑니다— 모든 예배 참석.
- F. 주일 아침예배 때만 갑니다.
- G. 교회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 H. 교회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 I. 규칙적으로 자주 기도합니다.
- J. 때때로 기도합니다.
- K. 식기도만 합니다.
- L. 기도를 전혀 안합니다.
- M.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 N. 매주 여러 번 성경을 읽습니다.
- O. 성경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 P. 성경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 Q. 주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 R. 주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가끔 말합니다.
- S. 주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 T. 주님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U. 기회가 올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증거합니다.

V.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증언하기를 원하나 자주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W. 증거하기를 거의 안하거나 전혀 하지 않습니다.

X. 뉴스와 행사들과 스포츠에 대해 좋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런 일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Y. 이 세상의 일들에 관해 바로바로 관심을 가집니다. (TV, 신문, 잡지, 라디오, 스포츠, 몇 가지 취미생활 등등)

Z. 죄와 부도덕이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합이 가능하겠지요. 예를 들면, 어떤 아버지는 C, F, K, O, S, W, Y가 될 것이고 어떤 어머니는 A, E, I, M, Q, V, X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모들에게 가장 잘 맞는 글자가 어느 것인지 생각하기 전에, 당신은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글자는 어느 것이지?”하고 물어보세요. (“오 하나님여 _____ 판단하소서!”(시43:1;26:3; 여기가 항상 새로 시작하기 좋은 곳입니다!))

학교와 주일학교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다양한 상황들과 부모들의 조건들이 당신의 것과 같을까요? 각 가정의 상황은 독특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요?

부모들이 그들의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 가정에서의 공통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정 폭력
- 2) 가정 학대와 욕설
- 3) 가정에서의 음주 (마약)
- 4) 간통 — 다른 남자/여자들과 결합
- 5) 근친상간, 성적 학대
- 6) _____
- 7) _____

가정에서의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무슨 이유입니까? 마태복음 19:3-9에 보면, 주님께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이혼)에 대해 논의하고 계시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생각해 왔던 이런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핵심 절은 8절입니다. 이혼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소망이었습니까? _____ 이혼, 그리고 이 모든 다른 문제점들은 “사람의 _____의 _____ 때문에(8절)” 왔던 것입니다. 네, 가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원인은 사람의 죄성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장 좋은 아버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마7:9-11 특히 11절)? _____ 당신은 당신의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렘17:9)? _____ 당신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면에서 다릅니다. 여기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 1) 많은 훈련을 통하여 아이들을 훈육하며 그들에게 많은 제약조건들을 두는 부모들.

아이들은 결코 아무 것도 허락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큰 감옥이고 부모들은 교도관의 역할을 합니다(혹은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등등 자유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2) 얼마의 훈련을 하며 아이들에게 몇 가지 제약 조건들을 두는 부모들.

때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못합니다. 때론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지만 어떤 때는 제약을 받습니다.

3) 아무런 훈련도 시키지 아니하며 아이들에 대한 제제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함.

이웃 사람은 “그들은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다. 그들의 부모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개의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4) 어느 정도 부유한 부모들

“그/그녀는 왜 항상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돈이 없는 걸까?”

5) 빠듯한 예산을 가진 부모들

“왜 그/그녀는 나처럼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

6) 지적인 일들(책들, 독서, 등등)을 강조하는 부모들

“왜 그/그녀는 학교에서 그렇게 잘 하는데 나는 왜 이리 어려울까?”

7) 오락(TV, 라디오, 코미디 서적 등)을 강조하는 부모들

“나의 부모는 나를 늘 공부하라고 방으로 보내는데 왜 그/그녀는 TV를 저렇게 오래 봐도 괜찮을까?”

종종 어떤 젊은이는 그 자신(혹은 그녀)이 어려운 가족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혹은 그녀)는 다른 가족을 바라보고 이 가족은 아이들과 부모사이에,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 더 좋은 관계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과로서, 어떤 젊은이는 질투나 시기를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괴로움과 증오까지 하게 됩니다.:

“내가 너의 집을 보니 내 집이 미워졌어!”

“나는 네가 가진 가족과 같은 생활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의 부모는 그/그녀의 부모들처럼 하거나 그런 곳에 가지 않아.”

“그의 집은 항상 천국과 같아 보이는데 나의 집은 항상 지옥과 같이 느껴져.”

위의 모든 말들은 바르지 못한 생각과 상황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가족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 실제적인 문제를 가졌던 사람들은 다음의 누구입니까 (3개의 바른 답에 동그라미 치시오):

1. 아브라함
2. 이삭
3. 에서
4. 요셉의 형제들(창37)
5. 요셉
6. 아론과 누이 미리암(민12)

또 다른 문제의 가능성은 한 사람이 좋은 가족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와 싸움이 있는 가정을 보며 이 사람이 매일 직면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황들과 환경 그리고 배경 등이 부모에 따라 다른 점과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런 차이를 알아야하고 그 차이를(감사와 이해로) 받아들일 여지를 가져야하고 친구들, 학교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만남에 있어서 그런 차이들을 받아들여

야 합니다.

집(house)과 가정(home)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은 사람들이 사는 빌딩입니다(주소). 가정이란 한 가족이 살고 연관되며 대화하고 놀라운 축복들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림]

집(house)		가정(home)	
- 아파트	352번지	- 함께함	김씨네 가족
- 이그루 얼음집	주소, 장소	- 사랑	
- 티피 이동가옥		- 대화	
- 오두막집		- 서로 도움	
- 판잣집		- 가족 간의 개인적인 관계	
- 다른 집 모두 포함			

우리는 “단란한 우리 가정”이라고 하지 “단란한 집”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같은 곳은 없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집과 같은 곳은 없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와 주부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도 집이라는 장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한 집을 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중요합니다. 나는 훌륭한 가정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인정되어지며 전 가족이 성경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순종하기 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이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가족의 각 지체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롬7:18,24) _____ 마귀는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임명한 가족(벧전5:8)을 폐하고 붕괴시키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까? _____ 세상은 가장 강한 가족들에게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롬12:2;요일 2:15-17)? _____ 당신은 천국에 1)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2) 파괴시키는 마귀; 그리고 3) 우리를 매혹시키고 매료시키는 유혹하는 세상 체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_ 당신의 가족은 문제가 없습니까? _____ 당신은 문제가 없는 가족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_____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가정을 더욱 더 채우셔야 하고 그분께서 그리하면 할수록 가정들이 더욱 천국과 같이 되겠지만 가정은 절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유한한 시간에 속하고 천국은 영원에 속합니다.

또한 나의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약한 가정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옥은 아닙니다. 나의 가족 구성원들은 자주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 지옥에 대해 말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지옥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가족 간의 생활이 매우 비참하더라도 이 비참한 인생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처벌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이 불호수가 아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마련된 처소도 아니며 둘째 사망도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당신에게 임한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 것도 나의 가정의 상황보다 더 나쁠 수 없다”라고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네, 그보다 더욱 나쁜, 실제로 존재하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유한한 시간에 속하고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원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천국에 있지도 아니하고 지옥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더 낮게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 변화하기 위해 당신의 가족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변화되기 위해 당신 가족의 구성원들을 바라보지 마시오(그들

이 변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런 일이 생기기 기대하지 마시오). 변화하기 위해 당신의 환경을 보지 마시오(당신 주변의 일들과 당신이 사는 곳). 변화하기 위해 당신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마시오. 비밀은 이것입니다. :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변화시켜주시는 은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도 당신이 간증이 되게 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주님께 바르게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켜 그분의 축복이 당신을 추구하게 하고 따라잡게 하며 당신 위에 흘러내리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신28:1-2)! 당신의 재들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실지 보십시오(사61:3)!

그 변화는 당신 안에서 일어나야합니다! 상황들은 더 낮게 바뀌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은 더 낮게 바뀔 것입니다(그리고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더 나은 것처럼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전과 동일하게 있겠지만 그러나 당신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변화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그분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도록 지금 바로 허락하시겠습니까?

주일학교 7학년 3과 (관계편)

부모님과 관계- 복습(review)

이름 _____

1. 부모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아이들이 어릴 때, 그들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고후12:14)
3.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 늙게 되시면, 누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나요? (딤후5:4)
4.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가족 중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나요?
5.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체벌이 왜 사랑의 표현인가요?
6.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훈련하시나요?
7. 신명기 6장7절에 보면, 언제 유대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쳐라고 말씀하나요?
8. 에베소서6장4절에서 나오는 훈계(admonition)를 뜻하는 단어의 뜻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C로 시작하는 3가지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9. “그 아버지여,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육신적인 부분 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인지를 설명해 보세요.
10.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의 자녀라고 싸우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솔로몬 왕은 누가 진짜 그 아이의 어머니인지를 밝혀냈나요?
11. 아이들이 따라야 할 2가지 기본 의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12. 마지막 때에 있는 가정의 상황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13. 만약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디서 그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웃집에서?
14.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이상에 맞춰 행하나요? 왜 혹은 왜 아니죠?
15. 모든 부모님들은 구원받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양쪽 부모님을 생각해 볼 때 나올 수 있는 4가지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6. 왜 젊은 사람이 가정에서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17. 부모님의 영적 상태에서 존재할지 모르는 몇 가지 가능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8.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혼, 폭력, 잔인함, 남용 및 기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의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요?(마19:)
19. 예수님께서서는 심지어 아버지들의 최고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셨나요?(마7:9-11)
20. 가족들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차이점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러한 차이들이 어떻게 질투와 쓴뿌리 같은 것을 이끌어 내나요?
21. 젊은 사람이 많은 불필요한 문제들을 피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가족들간에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2. 집과 가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3. “우리 가정은 천국이다” 이 말에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내 가정은 지옥이다” 이말에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요?
24. 가정의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변화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5. 하나님께서는 이 실타래처럼 얽힌 가정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주일학교 7학년 4과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아이들은 어디에 속할까?)

이름 _____

1과에서 우리는 “왜 부모님이지?”에 대해 공부했는데, 이 과에서는 “왜 아이들이지?”를 묻고자 합니다.

[그림]

1과에서	아이 혹은 어린 사람	부모들(혹은 누구든지 책임을 맡은 사람)은
우리는 아이의 눈을 통해		공급하고, 보호하고, 훈련시키고,
부모를 봤습니다.	부모는 무엇 때문에 주셨나?	지시하고, 본보기를 보여주는 등등

이과에서는	부모들	아이 혹은 어린 사람
우리는 부모의 눈을 통해		왜 아이들일까?
아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주셨나? (왜 그녀일까? 그일까, 그들일까??)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첫 부모를 만드셨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길, “_____고 _____여 (아이들을 낳음) 땅을 채우라”(창1:28). 창조주의 소망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땅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 1) 그분의 영광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43:7;계4:11)
- 2)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사43:21)
- 3)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분의 인격을 보여주기 위해(창1:26-27—“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 4) 그분의 주되심을 드러냄으로서 그분의 땅위에서 승리하기 위해(창1:28--“지배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아이들은 어른들(남자들과 여자들)이 되기 위해 자라나고 그 후에 그들의 부모들을 떠나게 됩니다(창2:24-25). 성인으로서 그들은 특별히 혼인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들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창2:23-24;엡5:22-23). 끔찍한 죄의 결과 때문에(창2:17;3:19;5장--“그가 죽으니라”), 부모들의 늙은 세대는 죽고 젊은 세대들이 들어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영상이 그분을 신뢰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에 의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휩쓴 대홍수 이후에, 오직 3 가족들과 여섯 부모들(노아와 그의 아내는 제외하고)만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땅을 채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창9:1).

우리가 아이들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사람과 몸의 차이를 구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비교를 보십시오)

사람	몸
혼/영	몸, 뼈들, 피, 뇌, 등등
몸안에 사는 실제의 사람	혼의 집
인간의 비물질적이고 육신적이 아닌 부분	인간의 물질적이고 육신적 부분
인간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음.	부모의 “제품” (하나님의 유전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지혜, 긍휼과 은혜에 따라서, 세상에 들어오는 각 아이들의 시간과 조건을 지도하고 허락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빈민가에서 태어났거나, 큰 코를 물려받았다면 세상이 이미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아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그녀는 완전한 사람입니다(비록 아이가 어떤 육체적 결함들이나 문제들 혹은 장애들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다음과 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 | | |
|------------------|----------|
| 1) 보지 못하고 (요9:1) | 4) _____ |
| 2) 걷지 못하고(행3:2) | 5) _____ |
| 3) 정신 지체아 | 6) _____ |

이러한 육체적 장애들이 사람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듭니까? 지능발달이 늦은 아기는 건강한 아기보다 사람이 되기에 부족합니까?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는 사회에서 그의 행로와 말에 제한을 받게 됩니까(이 세상에서와 이 인생에서 그가 운영하고 기능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어떤 육체적 차이들과 문제들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까? 아이의 육체적 특징들은 대부분이 유전원칙에 의해 부모의 유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일 당신의 부모가 163cm와 155cm의 키를 가졌다면 아마도 당신이 농구광이었다 할지라도 183cm이상 자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육체적 문제들은 부모들의 죄들과 해로운 생활방식들에서 오기도 합니다.:

- 흡연 -- 사회적인 죄들(성병)
- 마약 -- 나쁜 식습관
- 술 -- 등등

이런 것들은 때로는 기형아를 생산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아이들의 이런 육체적 단점들에 대해 모든 부모들이 항상 책임이 있습니까(요9:1-3)? _____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온전히 아시는 이유들로 그런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과 관련된 그런 모든 문제들은 아담의 불순종에서 온 원죄의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죄 없는 천국에서는 기형아나 장애인들이 있을까요(계21:4)? _____

성경에 의하면, 다산하는 것이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28과 9:1의 처음 세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_____ 아이들은 축복이며, “그의 _____(화살을 담은 통)에 그들이 가득한 사람은 _____니다”(시127:5).

아이들은 왜 그런 축복일까요? 아이나 어린 사람은 그/그녀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기여를 할까요? 아이나 어린 사람은 그/그녀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까요? 왜 아이들입니까?

어린 시절은 준비 기간입니다. 매년 다음 해를 위해 길을 준비합니다. 유아는 영아가 되기 위해 준비합니다. 영아는 작은 소년이 되기 위해 준비합니다. 작은 소년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며 학생이 됩니다. 어린 학생은 십대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합니다. 십대는 젊은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합니다. 아이는 성장과 개발이라는 다음 단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유년 시절이 또한 부모들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시기임을 알고 있습니까? 매년 아이들이 자라고

발전함에 따라, 부모들은 더 나은 부모와 사람들이 되기 위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가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잠22:6과 엡6:4), 그러나 아이들이 부모를 훈련시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신이 자라면서 당신도 엄마와 아빠가 자라고 더 나은 사람들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발전하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그런 것처럼 배우고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아이와 함께 부모들은 많은 실수들을 저지를 수 있고 자주 훈련, 사랑, 인내 등의 영역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두 번째 아이 때는 그들이 실수를 덜하게 되기 원합니다. 다섯 째 아이가 태어나면 이미 전의 네 아이들로 인해 많은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부모들은 부모 역할에 더욱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두 남자들이 그들의 몸을 단련하고자 애쓰는 것을 보겠습니다. : [그림]

팀	팀
두 개의 덤벨을 갖고 있습니다	무게(웨이트) 셋트와, 두 개의 덤벨, 줄넘기와 운동용 자전거를 갖고 있습니다.

팀은 2달 동안 운동하고 있습니다	팀은 10년동안 운동을 해 왔습니다.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_____	바디 빌딩에 대해 누가 더 잘 알고 있습니까? _____
누가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_____	

이제는 디도서 2:3-4을 생각해 봅시다. 젊은 여자들은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_____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하는 것을 누가 가장 많이 알까요, 젊은 여인들 혹은 연로한 여인들?

이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의 깊게 따져봅시다, 두 어머니들의 예가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마리아	마르다
6 자녀들	14 손주들	2 자녀들 (2/4살) 손주 없음

마리아는 엄마로서 37년을 살았습니다. 마르다는 엄마로서 4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엄마가 가족을 키우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까요? _____ 누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더 많이 알까요? _____ 누가 가장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_____
누가 가장 많은 행동을 해 왔습니까? _____

3학년 초등학생이 대학생에게 그의 전체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듯이, 젊은 여인들은 나이든 여인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연로한 여인들은 그것을 모두 통과했으며 그것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곤경의 대학”으로부터 졸업했습니다! 그들은 싸워왔고 경험했으며 숙련된 베테랑이 된 것입니다.

여인은 그녀가 연로해지기 전에는 젊은 엄마가 되는 것을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이 그가 나이 들어서야 젊은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는 그렇게 많은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어리석은 실수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1)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을 발전시키고 그들이 더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는 영역과 죄들에 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처음 훈련하고자할 때 그/그녀는 곧 그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등등을 발견하게 되며 그들이 부족한 것을 공급받기 위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모님 같은 돌보심을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그들 자신의 필요들(즉, 부모들의 필요들)을 부모들에게 보여줍니다.

2)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관찰 하면서, 그는(혹은 그녀)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떤가를 보게 됨에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나 혹은 그녀가 어떤지를 보게 됩니다.:

고집이 센 아이는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끔 고집부린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순종하지 않는 젊은이는 내 자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는 아이는 곧 나와 같이 행동합니다!

두려워하는 아이는 내가 두려웠던 시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자기중심적 성향(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할 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인들은 다 자란 아이들일 뿐이고, 아이에게서 보여진 것은 종종 부모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는 가능한대로 고집세고 이기적이며 순종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나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다. 나는 나의 부모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죄들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생각은 무엇이 잘 못된 것입니까(롬 3:3,8;6:1)?

3)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그녀의 보호 안으로 전적으로 헌신되어지도록 그들의 책임을 직시하도록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은 상시 근무(풀타임) 부모들이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준비되기 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것이고(1쪽을 보시오), 부모들은 항상 직무 중에 있어야만 합니다. 벗어나는 것은 허락이 되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부모의 역할이라는 책임을 다음과 같은 일로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욱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산아제한 방법 -- 이혼
- 낙태
- 입양

그 결과로 그들은 부모의 신분이 그들을 가르치고자 의미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상실당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생기기 전에는 부모들은 비교적 그가 하고 싶은 대로(자기중심 성향)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의무가 있게 되고 이것은 부모가 그 자신(혹은 그녀자신)으로부터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게 합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그분의 자녀들의 행복에 의무감이 있습니까?

4)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에게 사랑과 자기헌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가장 높고 좋은)을 위해 자신을 주는 것(자기를 희생하는 정도로)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아이들을 위하여 진정으로 돌보고 적합한 동기들과 목표(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는 모든 것)를 갖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원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그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이것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5) 아이들은 그들이 떠나야할 때가 오면 그들의 부모들에게 마음의 고통에 대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그들이 부모들로부터 떨어져야할 때가 옵니다(창2:24).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하고 좋은 나쁜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그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겔18장).

하나님 자신께서는 사람이 가게 하셨고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_____” 오셨습니다(눅19:10). 오늘날에도 남자와 여자들은 그들이 생명이든 죽음이든 선택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분을 선택할 것을 바라시지만 그 결정을 사람이 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신30:19;사66:3-4;겔18:23;마23:37;딤후2:4;요3:16).

그리하여 부모들은 아이가 개인적인 결정들과 선택들을 할 것을 허락하는 시기가 오면 마음의 고통과 가슴 아픔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로 인해 근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아이들로 인해 근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엡4:30) 그들은 또한 자녀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기쁨과 즐거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손을 뻗어 찾고 있으며 그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 아이들을 이용합니다! 1)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에게 사랑과 주는 것을 통해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들이 2) 아이들로부터 배우게 되고 그들 자신의 삶에서의 필요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4)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도록 3) 생각하게 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5) 그러면 부모들은 더 나은 부모들과 사람들이 되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6) 그때 부모는 손을 뻗어 직계 가족(마치 연로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을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림)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받을수록, 그/그녀는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더 많이 배우고 받을수록, 그/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고 돌보기를 추구하게 됩니다.(1) 부모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4), 부모는 더 많이 받을 것이고(5) 그러므로 부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게 됩니다(1,6). 그러므로 아이의 성장의 각 단계(아기, 아동, 십대, 젊은이)에 걸쳐 부모는 거기에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때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아이-부모의 관계를 그/그녀가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 중 한 가지로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림)

부모는 무시하거나, 태만하거나 아이들에 대한 그의 책임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습니다(일에 파묻혀 있거나, 매일 밤 나간다가, 자는 것 등등). 부모는 “꺼져 버려!”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 “아무도 나에 대해 관여 안하는데 왜 나는 너에 대해 신경써야하니?”, 등등.

부모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고, 배워야할 필요성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함을 무시하고도 그의 자녀들의 단점들, 실수들과 문제점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한 부모가 그의 아이가 마약에 의해 망가진 것을 본다면 그는 그의 시간과 돈을 같은 것으로부터(반마약 운동을 하는 등)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고 구하는데 쓸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교도소에 가는 아들이 있다면 그는 그의 힘이 되는대로 범죄와 싸우고 다른 사람들을 창살 뒤에서 끝나지 않도록 뭐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빠가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여 — 부모님과 인내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합니다(그리고 당신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 당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주일학교 7학년 5과 (관계편)

누구의 책임인가?

이름 _____

책임감은 누군가가 지닌 의무이자 반드시 이행 되어져야 하는 책무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책무나 의무를 잘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즉, 그 사람이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믿을 만하고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일컫는 말입니다. 책임은 삶의 의무와 요구사항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적절히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적, 정신적 능력에 따라서, 제시간에 학교에 등교하고 모든 수업 시간의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며, 선생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모든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하고 쪽지 시험에서부터 중요한 시험까지 모두 철저히 준비하며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학생의 책임입니다.

만약 사람이 손 하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손이 할 수 있는 분량만 책임지고 두 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수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학 학생이 자신이 부여받은 정신으로 가장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책임감 있고 계산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책임감 없고 계산적인 마음에 사람보다 수업에서 훨씬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죠?

책임은 모든 사람이 수행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신뢰(칭찬)를 받거나 혹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팀이 녹색불에 안전한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앞차를 받았습시다. 팀이 잘못이 있나요? _____ 팀이 그 사고에 책임이 있나요? _____

미스터 존은 수영 지역이 상어가 출몰할 위험이 있다고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했는데도 만약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_____ 만약 미스터 존이 그들에게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무시하고 수영하러 가서 불의의 사고로 누가 팔이나 다린 한쪽을 잃어버리면 누구의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미스터 존은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수영하는 사람들은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35장16절에 묘사된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민수기35장22-23절에 설명된 사람도 또한 살인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이 더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_____

빌라도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원했었나요?(마27:24) _____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원했었나요?(마27:25) _____ 그들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었나요? _____ 누가 가장 책임이 있나요?(요19:11) _____

누구의 책임인가?

성경은 통치자들이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창세기9장1-6절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과 질서를 유지할 정부를 세우라는 권리와 의무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 법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살인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구절이 사형제도의 정당성을 제시해 주고 있나요? _____ 로마서13장4절에 따르면,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그들은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_____ 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재판관들이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명기25장1절에 보면, 재판관들은 의로운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고 _____ 해야 하며 사악한 자에게는 _____ 해야 합니다. 악인을 잡아서 그 죄인을 무죄선고

내리는 재판관은 비난을 받습니다. 모든 재판관들은 어느날 위대한 재판관 앞에 서서 자기의 행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82편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을 재판하실 것입니다.(이 구절에서 나온 “신들”이란 단어는 정의를 집행함으로써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변해야 하는 인간 재판관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선생님들이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3장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분에 넘치게 가르치는 자나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짓된 무언가를 믿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짓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게 만듭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책을 읽는 사람과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비난 받아야 하나요? _____ 마약을 먹는 사람과 마약을 먹어라고 유혹하고 그에게 판매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책임이 있나요? _____ 악에 대해 혹은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들이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_____ 을 선포하기 전에(딤후4:2) 먼저 하나님께서 _____ 하실 것을 말했습니다.(딤후4:1) 여기에는 물론 목사도 포함됩니다. 모든 목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가르친 것에 대해 혹은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해 회계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자신의 책임을 충족시켰나요?(행20:26-27)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목사는 자신의 혼 뿐 아니라 양떼의 혼들도 돌아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히13:17)

성경은 부모가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난 1과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좋은 본을 보일 책임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아이들도 책임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난 과에서 아이들이 지켜야 할 2가지 주요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는 책임이 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이 싫든 좋든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신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하나님께 회계보고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선택한 결정 혹은 실패로 나타난 결정이라고 그 결과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거든” 이것은 마치 “나는 선택할 필요를 모르겠어 왜냐하면 단지 어떤 것에든 관련 되는게 싫거든”라고 말하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그가 깨닫는 여부에 관계없이 어딘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삶과 삶에 의무와 책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던져버릴 수도 없고 그것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취급할 수도 없습니다.

책임의 정도

물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이 있지만, 책임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5살짜리 어린 아이한테 11살짜리 어린이가 하듯이 아픈 엄마를 간호할 것을 기대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50개 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한 개 주를 다루는 주지사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들 보다 부모에게 많은 지혜와 인생의 경험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더 많은 지식과 더 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양자도 성도들 보다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양떼를 잘 다스리고 꼴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정도는 누가복음 12장4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한 원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생각해볼 문제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 은사들을 특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나요? 그 은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책임회피 할 목적에 변명들

다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자주 언급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 1) “나는 너무 어려! 내가 나이가 들면 이런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거야!”
- 2) “나는 너무 바보 같아! 나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줄 몰라” 그런데 이런 무지함이 핑계가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짊어 질 책임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3) “나는 너무 게을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해”
- 4) “나는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 아마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면 좀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책임을 완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 5) “내 친구들은 하나같이 책임감이 없어. 그들은 공부도 잘 안하고 학교도 대충 다녀, 왜 나만 예외가 되야 하지?”
- 6) “내 부모님은 무책임해. 부모가 해야 할 도리를 제대로 안해. 근데 왜 나만 내 역할을 잘해야 하냐고?”

당신은 그밖에 다른 핑계거리를 생각할 수 있나요?

진실 혹은 거짓: 부모님의 무책임함이 아이들의 무책임함을 허용한다. 만약 부모님이 무책임하다면, 아이들도 책임감 있게 될 필요가 없다.

에스겔 18장

주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십니다.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내가 누구를 탓해야 하나요? 아버지를 탓할 까요? 내 할아버지를 탓 할까요? 우리 엄마를?

에스겔18장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5-6절에 첫 번째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10-13절에는 두 번째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14-17절에는 세 번째 사람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났나요? _____ 그의 책임 있는 행동이 두 번째 사람인 그의 아들도 또한 책임감 있게 살아갈 것을 보장하나요? _____ 그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이 그의 아들(세 번째 사람)에게 무책임하게 살 핑계거리를 제공해 주나요? _____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누가 그것에 책임을 지나요?(겔18:20)_____ 누가 재판관 앞에 설 책임이 있나요? 에스겔 18장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 내가 너희를 심판하되 각 사람을 그의 길대로 심판하리라...” 할아버지가 올바르게 행할 책임이 있고 아버지가 올바르게 행할 책임이 있고

아들이 올바르게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올바른 것을 행할 책임이 있나요?

책임 있는 행함의 축복

누가복음16장10~12절과 누가복음19장12~27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에 신실하고 책임 있게 행한 사람들은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완수하면 더 큰 책임감이 필요한 일도 맡기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어떤 회사의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비록 높은 곳을 오를 때 사다리가 유용하고 기계가 그들의 일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함에 따라 이제 관리직책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었고 나중에는 회사의 대표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더 큰 책임을 맡게 됩니다.

이런 원리는 운동선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라톤 경주에서 최종 결승선 라인에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에 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나요? 그것은 수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며 훈련받고 성실한 연습의 결과일 것입니다. 책임감은 좋은 업적을 이끌어 줍니다. 종종 우리가 심는 것은 우리가 걷어 들이는 것이 됩니다.(갈6:7)

무책임이 만드는 저주

책임감 있게 일을 완수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현재의 삶 뿐 아니라 다가오는 삶에도 댓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사람이 뿌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기에 일상가운데 무책임한 행동의 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어떤 소녀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소녀가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일에 끼어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소녀가 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건에 휘말리는게 싫었다면, 누군가 최소한 전화기를 꺼내 구조 요청을 보냈어도 그 소녀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했던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눅10:30-32)

2) 두 차가 심각한 사고를 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멈춰서 희생자들을 도와주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도 휘말리고 싶지 않아했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희생자들은 의료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성경 속에 나온 무책임한 말이 생각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나이까?”(창4:9)

3) 어떤 여성은 건강검진 받는 것에 불성실 했습니다. 초기에 발견된 암은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암은 너무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결과 또 다른 암 피해자만 남길 뿐이었습니다.

4) 어떤 젊은 남자는 자신의 차의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는데 소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고속도로에서 그의 브레이크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심하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5) 어떤 학생은 마지막 기말시험을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학점은 D+(그가 교수님께 불평해야 할까요?)

젊은 사람은 가능하면 빨리 책임감 갖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방과 옷가지 등을 정리하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빨래하고 청소하고 할 준비가 되었나요?

무책임한 젊은 사람은 결코 이뤄지지 않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힘겹고 그들이 다루기 어려운 일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탈선한 기차와 같습니다. 승객들은 자신의 목적지에 도달할 꿈을 꾸고 간절히 바랄지도 모르지만, 기차가 탈선된 상태로 달릴 수 없듯이 그 꿈이 이뤄지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책임감이란 레일은 우리가 현실을 올바르게 잘 즉시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처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라면 우등생 명예의 전당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숙제를 불성실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가 꿈을 이룰려면 학교생활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발견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설사 그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행한 것들로 인해 만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감

모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자라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만약 당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만약 당신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누가 비난 받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복종할 책임이 있나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추구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병원 인턴 의사가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환자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그가 지닌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계속 긴장하고 두려워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천 번의 수술 경험이 있는 대표 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인턴 의사는 문제에 직면할 때 마다 대표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고 인도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께 온전히 신뢰를 드리며 우리가 맡은 부분을 담당하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까?

주일학교 7학년 6과

제한사항들을 좋아하기 위한 배움

이름 _____

제한들이라 함은 구속하거나 가두는 경계선들 혹은 묶는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차들과 트럭들이 고속도로에서 너무 빨리 가는 것을 금하는 제한속도들에 익숙합니다. 어떤 제한들이나 법들이 없다면 우리의 도로들은 얼마나 안전할까요? 모든 다른 운전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빠른 속도로 달린다거나 모든 법들을 무시해 버린다거나 그들이 내키는 대로 운전을 한다면 당신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에 대한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신은 기쁘지 않습니까?

지난 과에서 우리는 책임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만일 젊은 사람이 바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_____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사30:21) 만일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도록 허락해야 합니까? 부모들이 “우리는 우리의 아들(혹은 딸)이 그(혹은 그녀)가 원하는 길로 가도록 허용합니다. 그것이 그(혹은 그녀)의 선택이니까요!”라고 말해야합니까?

이사야서 53:6을 생각해봅시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갑니까 혹은 그들 자신의 죄들을 따라 이기적인 길로 갑니까? _____ 사람들은 궤도(하나님의 길)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까 혹은 길을 잃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 길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까 혹은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합니까(롬3:12)? _____ 어느 개를 구속(개줄을 달아주는 것)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신 옆에 항상 머무르는 개일까요 아니면 항상 돌아다니는 개일까요? _____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본성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제한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겠지요.

책임감이란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결과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인생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제한들은 우리가 이러한 발전의 무대들을 통과하는 것을 도와주고 “피해자”가 되는 것과 길을 벗어나 도랑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인생의 단계들은 “도로표지판”(당신은 게임 판을 잘 알지요; 다음에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종착 지점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도로표지판”을 보여줍니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림]

인생의 도로판

시작 점

#1/2/3/4 유아기 --> 아동기 --> 십대시기 --> 성인 시기 --> 종착 지점 (하나님); 목표: 책임감을 배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부모의 책임은 젊은 사람들이 궤도(바른 길에서)를 지키도록 하여 그들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도로표지판에서 #1 사각형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그의 인생 항로를 십대 시기로부터 시작할 수는 없는데 그것은 그보다 먼저 12년이라는 기간을 통한 삶과 배움의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같은 혜택이 있고 목표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에스겔서 18장을 기억하십시오—각자는 바른 길로 내려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과에서 봤던 것처럼, 무책임은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의 행로를 수정할(선로를 탈선한 기차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으로서 훈련(기강, 징계)이 들어와야 할 곳입니다. 훈련은 사람을 제한사항들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십니까(딤후3:16)? _____ 그러므로 사랑이 많은 부모는 젊은이가 인생의 궤도에 있도록 훈련하고 바로잡아주어야 합니다. 훈련의 목적과 제한들은 당신을 그 길에 있도록 지키고 모서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젊은 사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한들이 없으면 결과는 비참하고 비극입니다. 이것은 젊은이를 장애자로 만들며 성인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뿐아니라 인생의 책임을 바르게 처리하기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정신병원에 가서 마약과 음주 그리고 그들이 빠져들었던 아주 많은 다른 것들에 의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장애가 되어있는 젊은이들을 만나보시오. 물론, 그런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젊은이들만은 아니지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바른 훈련과 바른 제한을 확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훈련은 안전을 가져옵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은 안전한 사람입니다. 두 개의 정부들을 생각해 보시오.:

정부 A

안정되고 확실한 군부, 안정된 재정 체제와 자질이 있는 근로자, 건강한 경쟁과 자유 시장을 통한 직업의 기회들이 있는 안정된 인력체제를 가지고 있는 정부; 법과 질서가 있으며 법을 어기는 자는 신속하게 벌을 주는 정부.

정부 B

제정체제(악성 인플레이션을 통한)가 통제력을 잃은 연약한 군부, 실업률이 높고 불법이 모든 곳에서 판을 치고 범죄로 인한 피의자보다 피해자가 더 동정을 받게 되는 정부.

당신은 어느 정부아래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_____

너무 많은 통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강요되고 잘못된 길로 내려가게 될 때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통제하는 공산주의 독재정권을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에는 개발할 (사람의 개발은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올림픽을 위한 숙련된 운동선수나 체조선수를 개발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정부적 체제는 그들을 사람으로서 개발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개발되는 것과 사람의 마음과 혼이 바른 길로 개발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바른 훈련은 그런 개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바른 종류의 훈련은 사람을 개발합니다. ; 독재정권은 사람의 건강한 개발을 부정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당신이 정말 배우기를 원한다는 가정 하에), 교사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잘 훈련된 환경에서 혹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뛰든지 하며 교사는 그들에게 어떤 통제도 하지 않는 무질서한 환경에서입니까? _____

(주목: 여기서 또한 공산주의 학교들에서 많은 질서와 통제가 있지만 학생들의 마음들은 진실보다는 오류로 세뇌시키고 있기 때문에 개발할 자유가 없습니다.)

제한사항들은 사람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합니다. 나는 동물원에서 호랑이에게 주어진 제한적 요소들 때문에 안전합니다. 나는 롤러코스터 위에서 벨트로 매고 안전 바가 나의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그런 제한사항들 없이 어떻게 안전하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습니까? 내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할 때에도 나를 절벽의 가장자리로부터 분리되도록 해 주는 단단한 난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그런 제한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당신은 우리를 매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다른 제한사항들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까?

제한사항들이 없을 때 위험이 옵니다. 큰 비극은 어린 사람이 그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옵니다. 이것은 무법과 재난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린 사람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다치고 때로는 회복이 되지 않을 선까지 가게 됩니다(당신이 정신 병원을 방문했을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공급의 장소 바깥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림]

죽음의 위험한 사막 (공급도 없고 우리가 제대로 자라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결핍)

한계나 울타리가 없음

놀라운 생명의 길 -> 공급, 풍부함, 건강, 살아있는 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빌4:19) -->

하나님께서도 감

죽음의 위험한 사막 (정신적 + 육체적 + 도덕적 + 사회적 위험들)

한계나 울타리가 없음 ; 면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많이 지을 자유가 있음

만일 당신이 14살에 길에서 벗어났다 해도, 시간은 계속 빨리 지나갈 것입니다(위의 도면을 보시오). 시계바늘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24살이 될 즈음에, 당신은 매우 갈증이 날 것이지만 당신은 사막에 있습니다(물을 얻지 못할 장소). 당신은 궤도에서 벗어났고 그 궤도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10년 동안, 당신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사막에서 살았으므로 안전하지 못하며 어떻게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해야할지 자신이 없습니다. 당신은 인생과 정면으로 마주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젊은이는 좋은 “정신적 지도”를 개발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코네티컷주의 미들타운시를 찾기 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세계 지구본을 가지고 있다면 미들타운을 보여줄까요? _____ 미국 지도는 미들타운을 보여줄까요? _____ 뉴잉글랜드 지도는 미들타운을 보여줄까요? _____ 커네티컷 지도는 미들타운을 보여줄까요? _____ 미들타운을 찾을 수 있도록 가장 많이 도울 수 있는 지도는 어느 것이며 거기에 어떻게 가는지도 정확하게 보여줄까요? _____

당신이 커네티컷주의 미들타운에 있는 이스트 스트리트(동쪽가)를 찾고 싶다고 상상해 봅시다. 커네티컷 지도가 도울 수 있을까요? _____ 어떤 지도가 당신에게 필요할까요? _____ 당신은 아주 상세한 정보가 있는 자세한 지도를 필요합니다.

많은 젊은이들(그리고 연로한 분들도) 그들 머리에 아주 빈약한 정신적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또 어떻게 가야할지에 대해 아주 상세한 정보를 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지구본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른 인생의 정신적 지도를 개발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이 필요한 자세한 정보를 갖지 못하도록 마약에 깊게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공부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아서 책들과 교사들로부터 올 수 있는 중요한 학습들과 방향들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과 경찰과 목사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 그들 모두는 그들에게 아주 훌륭한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가 없습니다 — 완벽한 안내자이시며 방향 제시자이신!

그 결과로 그들의 머릿속엔 바로잡혀진 것이 거의 없고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인생은 그들에게 어딘가로 가고 어딘가에서 얻어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불량한 정신적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인생길로 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방향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는 젊은이에 대해 맞습니까? 그들이 책임감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직업을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얼마나 어려운 삶의 현실들과 마주쳐 나갈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당신이 아는 젊은이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정말 세상의 삶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압박감들과 고통들을 다루어낼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갑자기 문밖으로 내보낸다면 당신은 얼마나 잘 견딜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집에서 같은 종류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실제로 아무런 훈련이 없기도 합니다 — 젊은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완전 자유재량이 허락된 분위기. 다른 가정에서는 훈련은 있지만 잘못된 훈련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좌절을 느꼈거나 화가 난 부모가 잘못된 이유로 아이들에게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인생을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다루지 못해서 아이나 젊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고통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그들 스스로 바른 길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들을 그 길에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바르게 커나갈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해 현명한 제한사항들을 설립하는 바른 성경적 훈련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훈련이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른 궤도에 너무 많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경건한 훈련은 좋은 것을 개발하고 나쁜 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음에 잘못된 훈련, 바른 훈련과 훈련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가 있습니다. 당신은 훈련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봅니까?

[도표]

극단적인 지배 ; 부모들이 잘못하고 있음

제한들 : 부모들이 옳게 함 (이것이 바른 길임)

극단적인 자유재량 줌 : 부모들이 잘못함

어린 아이 #1 A. 훈련은 받으나 잘못된 이유들로..

B. 좋고 나쁜 훈련이 뒤섞임

어린 아이 #2 C. 성경적인 훈련, 적당한 제한들, 성장과 개발의 여지 있음

D. 일부 훈련이 주어지지만 “원하는 대로 하라”는 성격이 강함

어린 아이 #3 E. 훈련도 없고 제한사항들도 없음

어린 아이 #1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일 내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나를 때린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나도 그를 때려야 합니까? 내가 도망가야 합니까? 내가 숨어야 합니까? 기억하시오.;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바른 길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곧 내가 그들의 잘못된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겔18:14-1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내가 바른 길에 있지 않다면 오직 나 자신만을 비난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 #2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일 내가 건전한 훈련을 받고 있다면 나는 감사해야만 합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이시오.

어린 아이 #3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제한 사항들이 없다면 나 스스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난간들이 없는 산길을 운전하고 가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길 위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교사가 학급을 훈련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나는 주의를 기울여 내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나의 부모들이 나에게 제한 사항들을 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셨고 나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제한사항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나의 안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침(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바로 나의 지침서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으로 가서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른 사고를 원하면 바른 삶이 나옵니다! 당신은 바른 것을 원합니까?

당신의 집의 배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뭔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아무 훈련도 없었던 집에서 살았던 25살의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갑자기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잘못된 길로 영원히 갈 수 밖에 없는 운명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의 상황에 대해 즉시 뭔가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즉시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못한다면 당신 자신 외에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훈련이란 무엇이고 무엇이 포함되어있습니까? 다음을 참조하시오.;

1) 그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바른 길에 있도록 확신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엡6:4;딤후1:6;잠22:6).

2) 그것은 소통입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길을, “이것이 길이니 그길로 걸어라”라고 말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3) 그것은 바로잡음입니다. 때로는 핵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보다 더 강한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행을 제한하기 위해서 가끔 밀바닥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서는 바로잡는 때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합니다.

4) 그것은 위로입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은 때로 궤도를 벗어납니다(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사 53:6)! 길을 벗어난 자가 다시 한번 자기 길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자할 때 확고한 바로잡음과 더불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요한복음 8:11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불량한 여인에게 한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5) 그것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제한들은 필요하고 어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확실하게 강제성을 띄어야 합니다. 만일 국가 경찰이 그들에게 강제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속도 제한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6) 그것은 돌봄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가장 고귀하고 훌륭한 아이가 되기만을 원하는데 그것은 다른 아님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부모들은 아이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하는 다리입니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혹 훈련이 많은 댓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제한사항들을 가지고 있는 훈련받은 어린 아이가 -----> 자유씨

훈련도 제한사항도 없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애. 그는 가고 싶은 곳 모두 다 가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과 있을 수 있어. 그는 자유가 넘치고 나는 너무 구속받고 있어. 나도 그와 같이 되고 싶다!”

이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바르게 훈련되어진 사람을 바라보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훈련도 안 받고 제한도 없는 아이가 훈련되어진 아이를 -----> 제한씨

보면서 그가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는다고 봄.

만일 그가 정직하다면 그는 “나는 집에 계셔서 나를 야단칠 만큼 보살펴주는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도 내게 뭔가 할 수 없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허락한다. 나는 서로 소통하고 바로잡아주고 위로하고 보살펴주고 통제해 주는 부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정직하지 않다면 그는, “나는 제한씨를 유인하여 내 옆에 오게 해서 그의 제한 사항들을 깨라고 하겠다. 나는 그에게 ‘봐, 너는 모든 재미를 놓치고 있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그가 내 옆으로 오지 않으면 그를 비난하고 그와 교제를 끊을 것이며 그를 괴짜로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림]

인생의 길 + 하나님의 길(방법)

시작선 #1/2/3/4 등 유아기---> 아동기 (십대까지) 부모들이 하나님의 지침서들과 통제아래 그들이 바른 길에 있도록 보호함. 법적으로 18살까지임 ---> 어린 아이가 혼자 서야 하므로 이제 부모들은 “충고”하는 역할을 하게 됨. --> 그가 궤도에서 벗어나면 그가 그 일을 바로잡고 제 길로 가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바르게 하도록 항상 격려할 수는 있으나, 이 일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 성인기. 성인은 그가 그 자신을 위해 설정한 제한사항들 안에서 살아야하며 새로운 세대를(그의 자녀들) 위한 제한 사항들도 설립해야합니다. ---> 성공, 안보, 만족, 안전 -> 하나님 종착지점

이것이 어린 아이가 걸어 나갈 수 있고 더 이상 부모들의 권위아래에 있지 않은 법적 나이입니다(21세

였었는데 지금은 18세로 낮아졌습니다). 사람의 현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8살에 정말로 독립할 수 있고 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인생과 마주쳐서 문제들과 씨름할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그들이 이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어린 사람들이 성인의 인생과 책임감을 준비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집 안에서는 가정의 규칙이 그들이 18살이 되었다고 해도 아직도 적용이 되며 그것은 곧 당신이 그들의 크리스천의 간증을 망치거나 가족의 기초들과 건물을 허물도록 부모들이나 주인들의 뜻에 반해서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집 안에 손님으로 초대되었고 집 주인이 “미안하지만 이 집에서는 흡연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면 손님은 그 집의 규칙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유죄 판결이 난 범죄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당연히 부모들은 그가 그들의 집에 숨어있거나 피난처를 구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랬다면, 그들이 죄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일반인들이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은 흉악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아들이 그의 인생을 바르게 잡으면 그는 다시 허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집안에 있는 동안은 그의 나이에 상관없이 가정의 규칙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주일학교 7학년 1과 (관계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름 _____

지난과에 이어서 우리는 인생의 여행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많은 규칙들과 요구 조건들이 존재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규칙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시오” “저것은 하지 마시오” “당신이 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하면 안되오” “예” “아니오” 그리고 요구조건들에는 “당신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오” “당신은 저것을 반드시 해야 하오” 등등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잘 가도록 도와주고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삶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모든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정지 그리고 진행”과 같은 표지판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해야 할 것	운전자가 주의 해야 할 것
차에 기름을 충분히 채우시오. 바퀴에 공기압을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런 요구 조건들을 무시한다면, 안전하게 목적지 까지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 금지 제한 속도 지키기 유턴 금지 응급, 구급차에게 양보하기 일방통행 차선 지키기

진행하고 멈추고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처럼 요구 조건을 무시하거나 규칙을 어겨서 불의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목격할 수 있나요?

소화전 옆에다 왜 주차를 하면 안되지?

왜 제한 속도가 있지?

왜 스쿨 존에서는 서행해야 하지?

왜 일방통행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하면 안되지?

이러한 규칙들은 우리에게 해롭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이롭나요? 이러한 요구 조건들이 우리의 삶을 해치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해주나요?

주의: 마가복음3장1~5절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_____ 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절)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항상 행복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닌가요?(신6:24)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제한 속도를 어기며 과속으로 운전한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_____ 안식일의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하기 위한 법인가요?(막3:4)_____

그러므로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주행 방향을 어기는 운전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무책임한 운전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전을 방해하며 그들의 목숨까지 위협스럽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여정을 갈 때,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해롭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곧바른 길로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과 규정은 학교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수업시간에 떠드는 것이 허용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수업의 내용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5분, 10분,

15분, 20분 지각을 해도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모습은 어떻 할까요? 이밖에 여러분이 생각 할 수 있는 학교에 좋은 규칙들은 무엇이 있나요?

성경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긍정적인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너는 해야 한다.” “너는 하지 말아야 한다.” 출애굽기20장3~17절에 나오는 십계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들 중에 어떤 것이 긍정적인 명령인가요? _____

그중에 어떤 것이 부정적인 명령인가요? _____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은 심지어 신체의 영역에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규칙, 규정들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1) 양치질을 하세요.
- 2) 당신의 몸을 씻고 샤워하세요.
- 3) 담배 피지 마세요.
- 4) 너무 많은 사탕이나 정크 푸드를 먹지 마세요.
- 5) 균형잡힌 식사를 하세요.
- 6) 충분한 운동을 하세요.
- 7) 너무 과로하지 마세요.
- 8) 태양을 직접적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 9)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세요.
- 10) 기타 등등

만약 이러한 규칙들을 무시하고 어겼을 때에, 누가 고통을 받고 댓가를 지불하게 되나요?

다음의 말씀들을 보시고 어떤 것이 긍정적인 명령이고 어떤 것이 부정적인 명령인지 찾아봅시다.

A. “너는 ~~해야 한다.”(긍정적인 명령) B. “너는~~해서는 안된다.”(부정적인 명령)

1. _____ 레19:18(두번째 부분) 2. _____ 신6:5 3. _____ 요일2:15 4. _____ 엡4:30
5. _____ 엡4:32 6. _____ 골3:9 7. _____ 골3:1-17 8. _____ 살전5:16
9. _____ 살전5:19 10. _____ 약4:11

당신은 그 밖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명령 혹은 부정적인 명령을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법과 규칙에 순종하는 것인 생명의 길입니다. (신4:1) 신명기 28장58~6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에 불순종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죽음이 찾아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임 명령은 사람을 긍정적이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망과 파멸의 길 신28:15	사람	축복과 생명의 길 신28:1
---------------------	----	--------------------

종종 성경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둘 다를 말씀하셔서 우리가 위협에서 건짐 받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시려 합니다. 다음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 1) 로마서 12:2 _____
- 2) 에베소서 5:18 _____
- 3) 에베소서 4:25 _____
- 4) 에베소서 4:26 _____

- 5) 에베소서 4:28 _____
- 6) 에베소서 4:29 _____
- 7) 요삼 11 _____
- 8) 히브리서 10:25 _____
- 9) 빌립보서 4:6 _____
- 10) 로마서 12:21 _____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것들은 하겠다는 나의 의지와 하지 않겠다는 나의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반응이며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전진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해야 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지 않겠다고 반응하는 것은 좋은 반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전진해도 좋습니다.

자! 다짐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규칙과 요구 조건에 따라 나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도시에서, 나라에서 내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주는 수많은 예를 제공합니다.

1) 루밥(Rhubarb)¹⁾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즐기세요! 당신은 이 맛있는 루밥 파이를 먹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루밥의 잎사귀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지마세요! 그것은 독이 있습니다. 루밥 식물은 여러분에게 맛있는 요리 재료가 되지만 그 잎사귀는 독성분이 있으니 주의 하세요.

2) 페이트 시너 혹은 테레빈유(Turpentine)를 생각해 보세요.

그 용기에 라벨을 보면, “오직 외부세척에만 사용할 것” 손에 묻은 페인트 자국을 지우는 데 효과적이지만 절대 먹어서는 안됩니다. 신체 외부에서는 사용 하라. 신체 내부에서는 사용금지.

3) 아스피린(Aspirin)같은 의사가 권장해주는 진통제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3알을 먹으세요.(그러면 당신의 아픔이 점점 회복될 것입니다.)

하루에 300알 먹는 건 금지.(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약을 한번도 먹지 않는 것은 안됩니다. 안 먹으면 당신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니까요.

복용 방법을 잘 따라주세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픈 영혼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위대한 의사이십니다. 그분의 처방전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지시사항이 가득한 그분의 성경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세요.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기 위한 핑계들

1) “나는 그 지시사항들이 무엇이었는데 몰랐어요.”

당신이 그 사실들을 몰랐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무지함이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은 반드시 해로운 것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순진 무구한 아이가 독을 마셨다면, 그 아이가 해를 입을 것이고 그러면 그 무지함이 아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할 책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지함의 죄들은

1) 샬러리와 비슷한 식물. 붉은 색이 많음. 파이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음. 그러나 요리 하지 않고 먹으면 독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

여전히 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레위기5장17절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어떤 혼이 주의 명령들을 통해 행하지 말도록 금한 이 일들 중 하나를 범하고 죄를 지으면 비록 그가 깨닫지 못했다 해도 여전히 유죄요,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라”

2) “나는 법대로 하는 것 싫어해”

왜 당신은 당신의 안전과 평안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법을 싫어하나요? 혹시 당신은 당신 삶이 망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건가요?

3) “난 그냥 규칙들 무시하고 싶어”

규칙들을 무시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얼어 있는 호수에 “살얼음 주의”라는 표지판을 무시할 수는 있지만, 그 표지판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지 않나요?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거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큰 집단을 형성할 거야. 그래서 만약 누군가 규칙을 지키면 그보다 나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줄거야”

이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과속하며 운전하는 데 왜 나만 예외여야 하지?” “내 친구들 중에 어떤 누구도 이 책을 읽지 않는데, 왜 나만 책을 읽는 숙제를 해야 하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설사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다 하여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위대한 법 제정자 앞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롬14:12)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에게 대답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악을 저지르는 그들은 반드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죄악에 참여한다면 마찬가지로입니다.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변할지도 모르는데 아마도 부모님(혹은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규칙을 만들어 책임을 지는 나이가 되면)도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염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지난 6과의 도표를 잘 살펴보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보통 자기 자녀를 교육하는데 처음에는 보통 E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둘째아이가 생기면 조금 평안함을 느끼면서 D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셋째 아이가 생기면 이제 부모님은 C 지점에 아주 가까이 가게 됩니다. 자녀교육에 관한 부모의 이론이 현실이란 벽을 만나 그 지점으로 변형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이제 직장을 갖기 위해 생업전선에 뛰어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는 불평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나는 형이 했던 것 하지 못하게 하죠? 형은 되고 나는 왜 안되요?” 부모는 처음에는 다소 느슨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곧바르게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아이들을 자신이 배운 대로 자라온 대로 똑같이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셋째 아이는 이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까요? 아니면 불이익을 얻을까요?

기억하십시오. 규칙과 법규는 당신의 _____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신10:13, 렘32:29)

주일학교 7학년 B과

정직함이 있습니까? 물론! 그리고 물론 죄의식

이름 _____

우리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길(6과 참조)과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위해 순종하여야 할 규칙들과 요구사항들(7과 참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길의 규칙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직함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길의 규칙들에 대한 사람의 반응)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당신은 규칙들과 규제들이(당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당신의 학교에서? 정부로부터? 당신의 의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나쁘니까? 미칩니까? 기쁩니까? 쓸쓸합니까? 화가 납니까? 즐겁습니까? 당신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저항하고 반항합니까 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종합니까?

규칙과 규제들에 대해 가능한 반응들:

-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반응
- 나쁘게 보고 부정적으로 반응
- 다른 반응들; 규칙을 무시함, 규칙에 무관심을 보임, 규칙을 거부함, 규칙을 거절함 등등.
- 어떤 이들은 “이것은 내가 개의치 않아” 혹은 “이것은 내게 아무 관계가 없어” 혹은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길의 규칙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여지없이 사람들은 규칙들 때문에 시달리고 그들은 규칙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종종 그들은 옳다고 알고 있는 규칙들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온 이 예를 보십시오. 학급친구가 당신에게 와서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장 많이 배우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까?”

“몽상하는 것이 나올까요 혹은 학급에서 집중해야 할까요?”

“나의 수학 지식이 내가 학교를 떠났을 때 도움이 될까요?”

“학급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입니까, TV 혹은 공부?”

그런 질문들에 대해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이 동료 학생에게 좋은 충고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신은 자신의 충고를 따릅니까? 당신 자신은 당신이 최선으로 알고 있는 것(당신이 확신하고 있는)을 행합니까?

건강분야에 있어서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양치질해야 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추운 날씨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많은 양의 인스턴트식품을 피하고 너무 단 것을 피하며 충분한 운동을 해야 하는 것 등등을 알고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주 실패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들을 _____, 그것들을 _____”(요13: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음을 고려해 봅시다.:

“나는 담배 피우는 것이 내게 해롭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껍니다!”

“나는 내게 야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싫어하므로 야채는 거의 내 식단에 없습니다.”

“나는 내 차의 기름을 점검해야 모터가 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내가 너무 바빠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_____을 행할 줄 _____ 행하지 _____, 곧 그에게는 그것이 _____가 되느니라.”(약4:17)

야고보서 1:22-23을 읽으시오. 한 남자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그는 무엇을 볼까요? 그의 머리는 모두 헝클어져있고 면도도 필요하고 얼굴은 더럽죠! 거울은 뭔가가 달라져야하고 바로잡아줘야 하고 씻어줘야 한다는 것을 그에게 인식시켜주고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그가 거울을 통해 본 것을 즉시 잊어버리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옷을 차려입고 일터로 갑니다. 당신은 이 사람처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울(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행동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규칙들과 규제들을 따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규칙들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따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보통 빨간 불에서 서지만 정지 표시에는 안 섭니다.”

“나는 학급에서나 도서관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자습시간에는 얘기합니다.”

“나는 매 주일 교회에 가지만 기도모임이 있는 밤에는 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알지만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1) 마태복음 27:3-4. 유다는 예수님께서서 무죄이며 의로우신 것을 알았습니까? _____

2) 마가복음 4:15, 16, 18, 20. 모든 네 그룹들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_____ 모든 듣는 자들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_____

3) 마태복음 7:24-27.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둘 다 들었습니까? _____

4) 로마서 2:21-22. 21절에 나오는 유대인 교사는 도둑질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_____ 22절에서 유대인 교사는 간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옳은 것을 확신하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23절)

5) 마태복음 21:28-31. 둘째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까? _____ 그는 그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_____

6) 삼상28:3,7. 사울은 죽은 자를 접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까? _____ 그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 행했습니까? _____

7) 사무엘상 15:3,9,11,13-15,19-23.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알았습니까? _____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혹은 일부만 순종했습니까? _____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8) 열왕기하 12:2-3. 여호아스는 바르게 행하였습니까(2절)? _____ 여호아스는 모든 것을 바르게 행했습니까(3절)? _____ 그는 바르게 행했지만 그러나.....

9) 사사기 1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원수들을 다 쫓아내 보냈습니까? _____ (“어느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주목하시오.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더 잘 알고 있었습니까(삿 2:1-3)? _____ 그들은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했습니까(삿2:2)? _____ 주목: 2장 3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그들을 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문제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우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10) 열왕기상 13장.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9, 17절)? _____ 그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있었습니까(8절)? _____ 하나님의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였습니까(19절)? _____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까(24절)? _____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규칙과 명령들에 부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물론 확신 (그 길의 규칙에 대한 사람의 인식)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확실하고 안전한 바른 방향과 노선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옳고 사람으로서 발견하고 기뻐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하나님의 규칙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그분의 길이 최선이고 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길을 완전히 따르며 거기로 진행해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규칙들이 나를 그 길로 데려다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림]

바른 대응들 --> 옳은 길 (바르고 안전한 경로) --사람은 확신에 차 있고, 편안하고, 능력 있으며 하나님의 길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진리를 체험함-->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킴

“나는 하나님의 길로 내려가는 것과 하나님의 규칙들을 따르는 것을 선택한다...”

..... 고난들과 시험들이 있을지라도“

..... 나 혼자 걸어가야 할지라도

..... 대다수의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권위입니다, 내가 아니고!”

만일 우리가 혼자 남게 되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반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_____을 하는 사람들은(삿21:25) 하나님의 눈에 _____을(삿10:6)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길에 있는지 알지 못하며 혹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당신의 학급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왜 여기에 있지? 네가 살아있는 목적은 무엇이지? 너는 왜 오늘 아침에 일어났지? 인생은 왜 살만한 가치가 있지?” 그리고 나서 그들의 부모들에게 물어보세요. 또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미를 상실한 존재감:

그들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학교에 갑니다.

그들은 졸업하기 위해 대학에 갑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직업을 구합니다.

그들은 은퇴하기 위해 돈을 벌니다.

그들이 은퇴하자 곧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의 의미였습니까(요10:10)? _____ 그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마 15:14). 시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들을 따르는 바른 경로를 걷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그 길의 규칙들에 순종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만일 당신이 이런 사람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면 당신은 그가 실제로 확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정지 신호에서 멈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그가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지역을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제한속도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냥 그가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볼 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유일한 길로 인정했는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칙들을 따랐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듣고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와 의의 길로 내려가면서 규칙들을 따르는 것으로 대응을 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나와 있습니다.:

- 1) 창세기 18:19.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바른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_____
 - 2) 다니엘 1:8: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_____ 그의 _____ 속에 작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어떤 것을 허락하였습니까? _____
 - 3) 다니엘 3장. 샤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바른 길에 있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있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습니다(17-18절).
 - 4) 창세기 39장. 요셉은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님의 길로부터 그를 잡아당기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_____ 그는 하나님께 ‘네’라고 했고 그 여인에게는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 5) 민수기 13-14장. 열 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않았습니다(13:26-29,31). 두 명의 정탐꾼들(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길이 안전한 길이라고 인정했습니까(13:30;14:6-9)? _____
 - 6) 열왕기하 18:1-6. 히스기야는 어떤 면에서 여호아스와 달랐습니까?
-
- 7) 여호수아 24:15.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길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라고 인정했습니까? _____
 - 8) 열왕기상 22장. 미가야는 다음과 같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규칙들에 순종했습니까?
 균중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도? _____
 홀로 주장하는 것이라도? _____
 감옥에 가게 되어도? _____
 - 9)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은 비록 그것이.....라도 하나님의 지시들을 따랐습니까?
 순종의 대가가 높을지라도? _____
 아버지로서 하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도? _____
 인간적 관점에서 사리에 맞지 않아도? _____
 - 10) 에스겔 2:3-5; 이사야 6:8-11. 에스겔, 이사야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선포했던 사람들로 부터 반응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길로 모두 혼자서 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라” 하셨고 그들은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 --> 가장 좋은 길 --> 유일한 길 --> 나의 길

주일학교 7학년 9과 (관계편)

참되고 올바른 인간관계

이름 _____

지난 과에서 공부했듯이, 신자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에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신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의에 길을 갈 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단1:8) 만약, 내가 올바른 길을 갈 것을 선택했다면 나의 인간관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내 친구들(학교친구, 남자친구들, 여자 친구들 등등)은 어떨까요? 이 길에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갔을 때 내가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들을 다치게 할까요? 그들이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를 낼까? 슬퍼할까? 기뻐할까? 그들이 이런 나를 이해할까요? 나의 부모님 다른 가족들(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모르는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감으로써 그들에게 도움을 줄까요?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에 무슨일이 발생할까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야 하나요? 아니면 빨리 벗어나 예전으로 돌아와야 하나요?

관계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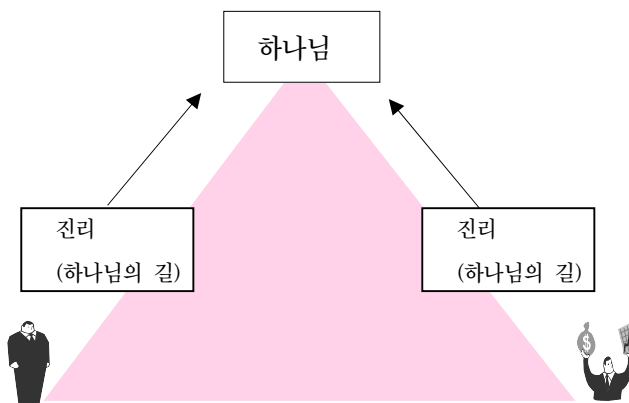
관계란 우리와 연관된 사회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매일 이루어지는 연결 관계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다면(그 길은 유일한 참된 길-요14:6) 나의 또래 집단, 친구들, 부모님과 연결된 인간관계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관계가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일이 생길까요? 내가 전에 만들어 왔던 내가 보기에 좋았던 인간관계를 잃어버리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변화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나는 만약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나의 인간관계가 덜 견고해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상의 모습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변화는 오직 더 좋은 것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더 잘 가고 발전시킬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돕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신6:24) 하나님을 위해서 (벧전1:14)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17:21,23 시40:2-3)

당신은 다음과 같이 말할지도 모릅니다.“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주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의무를 봅니다.(고전6:19-20) 하지만 나의 이 새로운 삶이 나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위 그림에 두 사람의 관계를 봅시다. 왼쪽의 사람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의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내 가족 혹은 친구들입니다. 위 그림에 따르면, 만약 내가 하나님의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의 나의 인간관계가 점점 더 멀어질까요? _____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약해지지 않는다고 말한 내용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나의 인간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이 사람이 나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길을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관련된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 나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해할까요? 종종 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요일3:1, 벰전4:4, 요15:18-19) 그들은 아마도 _____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고전1:18, 2:14) 그들은 내가 확신에 차서 “너도 교회 다시 나가는 건 어때?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 등등에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그들을 버렸거나 반대하거나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인가요?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신경 쓰나요? 내가 그들을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아니면 그들을 도와주나요? 내가 그들의 혼을 이겨오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저주하고 내버려 두기를 원하나요?



중요한 질문: 만약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참되고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유사(流砂)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최대한 도울 수 있을까요? 나도 그 유사속으로 뛰어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단단한 바위위에 서 있어야 할까요? 만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마15:14)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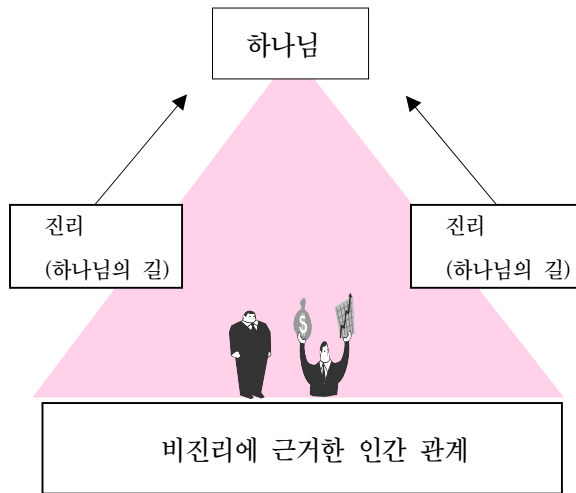
당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눈이 먼 도시에 당신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당신은 시력을 회복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이제 당신이 보는 것을 그들이 이해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당신을 부러워 할까요? 아니면 미워할까요? 그들에게 당신이 보는 것들을 설명해 줄 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을 미쳤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들이 감사해 할까요? 그들을 위해서 회복된 당신의 시력이 다시 나빠지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당신의 친구들처럼 되기 위해서 예전의 눈먼 상태로 되어야만 할까요?

마찬가지로 나의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되는 것을 추구해야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진정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나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그들도 참되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요3:19, 5:40,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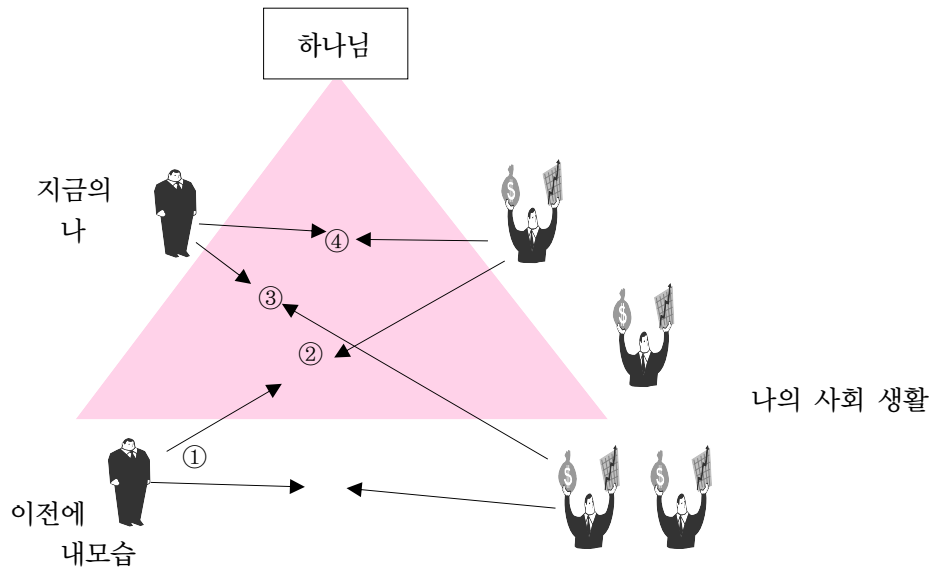
견고한 인간관계는 흔들리는 기초위에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함	위험함
	
진리	비진리
고전3:11-15 마7:24-25	잠14:12, 마7:26-27 잠1:10-16



처음에 얼 듯 보면 이 둘은 매우 친밀해 보이지만, 이 관계에는 단단한 기초나 안정된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당신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한 달 만 지나도 그 본색을 드러낼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얼마나 견고하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전과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에 당신의 인간관계는 어떤 차이가 생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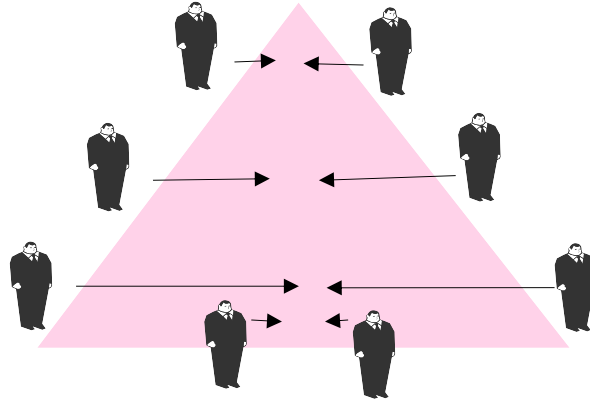


- ① 나는 올바른 길에 들어 서지도 못했고 올바른 인간관계도 맺지 못했습니다.
- ② 다른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고 나는 거기에 없습니다.
- ③ 나는 올바른 길에 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 ④ 우리는 서로 가까이 갈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인간관계가 동일한가요? 아니면 변화가 생겼나요? 그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왜 차이가 생겼지요?

당신의 친구가 의에 길로 접어들어 함께 가다가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친구가 멈췄기에 당신도 멈춰야 하는 건가요? “친구가 그렇게 하는 것 괜찮으니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할 것인가요? 진짜로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 유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우정(friendship)과 교제(fellowship)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정(비슷한 점이 많은 것)은 많은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 비슷한 흥미, 활동,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이런 것에 기초한 다른 사람과의 연계를 의미하지만, 교제(동반의식, 공통점을 나눔, 동일한 것을 함께 나눔, 공유함)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더 발전하고 깊어지며 성품이 닮아가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관계가 가장 가까운 교제(fellowship)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사람이 최소한의 교제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도 따르기(Christian fellowship)와 그리스도인들의 교제(Fellowship of christians)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따르기는 그리스도를 신자의 마음에 두고, 그분께 존경을 표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삶을 내어 드리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중에는 아직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모임에서 그리스도께서 제외가 되고 사람들간에 대화, 활동, 계획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분을 기쁘시게 하거나 존경을 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참되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른들의 세계를 잘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아 봅시다. 그들의 삶은 보통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직업? 자동차? 집? 가족? 돈?

여러분이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것이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까? 더 필요하게 없을까요? 이것이 당신의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나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좀 더 잘 통제할 수 있나요?

어른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 보다 좀 더 인생 경험이 많고 여러분이 아직 가지지 못한 것들을 먼저 가졌을 뿐이지요.

관계 발견하기

우리는 우리의 현재 인간관계가 매우 견고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드는 인간관계는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인간관계와 잘못된 인간관계 사이에 차이점을 배워보세요. 많은 인간관계들이 시간의 시험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많이 깨집니다.

과거에 여러분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친구가 아닌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당신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던 사람이 있나요? “당신의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은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우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멩에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11:29, 사58:9과 비교해 보세요.)

멍에는 두 개를 연결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몇몇 멩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되는데 이는 그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의 멩에= 정치적 압제와 속박

바리새인들의 멩에= 종교적인 압제와 속박(마23:4)

죄의 멩에= 부패한 마음과 본성의 속박

오직 가볍고 쉬우며 아름다운 멩에는 오직 하나 밖에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멩에이다.

낮아지심- 멩에를 맨 당신의 동행자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히13:13, 요15:18-19)

높아지심- 멩에를 맨 당신의 동행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승리에 아들이십니다.

홀로계심- 그분과 함께 한 사람들은 거의 없으며 그분의 길을 그분의 방향대로 가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그분의 길은 올바르고 참됩니다.

인간 관계의 발전

시간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변하나요? 당신도 변하고 있나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변하나요? 변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변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다른 사람들이 변할 때, 그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변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하나님께서도 변하시나요?(말3:6) _____

당신 삶에서의 변화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나쁜 건가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변화인가요? 아니면 더 않좋은 쪽으로 떨어지는 변화인가요? 왜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가는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당신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길에 올라서서 지금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를 보지 못한다면, 당신이 21살이 되면 그 필요를 보게 될까요? 30살 에는요? 40살 에는요? 70살 에는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변화 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현실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그것을 할 수 있나요?(히4:7)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지금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왜 그때가 되면 '네'라고 대답한다는 것이지요? 당신이 지금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데, 그때가 되면 당신의 마음은 시멘트와 같이 딱딱해질 것인데 그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지금도 그런 상태라면, 지금부터 10년 후에 당신은 더 않 좋은 상태로 변할 것이고, 그 때에 변화할 가능성은 더욱 더 희박해 집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가장 적절한 때는 언제일까요? (히3:7, 13,15, 히4:7) _____

인간관계에서의 기쁨

성장하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시편40장8절에는 올바른 태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_____”(시1:2; 119:16,24,35,47)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주안에서 우리자신이 기쁘다면 그분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시37:4)_____ 만약 우리가 먼저 그분의 왕국을 구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나요? (마6:33) _____ 이것은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사는 기쁨을 취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인간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아본다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 같나요?(시73:25)_____ 만약 이 한가지 가장 중요한 분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다면,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곧바로 펴지고 주님께서 돌보시듯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요?

당신의 발이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당신은 어느 쪽을 향해 나아가나요??

주일학교 7학년 1과

진행 과정과 결과물을 혼동하지 맙시다

이름 _____

과정이란 마지막으로 인도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이나 작업들입니다. 하나의 제품은 생산되어진 것이고 오랜 과정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생일 케익은 하나의 제품입니다. 생일 케익을 완성시키기 위한 과정은 버터와 설탕을 섞거나, 계란을 깨거나, 마른 재료들(밀가루, 소금, 베이킹 소다, 향신료)을 섞고, 마르고 젖은 성분들을 혼합하는 것, 견과류와 건포도들을 첨가하거나 당의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단계들을 포함합니다. 조리사가 계란을 깨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게 케익이야!”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오, 그것은 케익을 만드는 과정 중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미식축구 경기를 생각해 봅시다. 결과물은 터치다운(공을 골라인에 닿게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과정은 모든 경기들과 공을 골라인으로 가져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처리 과정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쿼터백이 패스를 했을 때 그가 아래위로 뛰면서 “우리는 도달했어! 우리가 끝냈어! 우리가 골을 달성했어!”라고 흥분되어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아니오, 그것은 오직 끝난 패스(한 단계, 한 경기)일 뿐이지 터치다운이 아닙니다. 처음 다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터치다운이 아니라 다만 첫째 다운일 뿐입니다(결과적으로 터치다운을 가져오게 될 과정에 있어서의 한 단계임).

크리스천의 삶에서의 마지막 완성된 제품은 무엇일까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롬8:29)? “그분의 _____의 _____과 같게 되도록”(그리스도와 같게 되는 것; 요일3:2 -- “우리가 그분과 _____ 될 것이다”) 당신은 이 목적에 아직 도달하지 않으셨나요?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13-14에 의하면 바울은 이미 골라인에 도착을 했습니까 혹은 골라인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_____ 빌립보서 1:6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셨던 선한 일을 마치셨습니까(만일 당신이 실제로 구원받았다면)? _____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시작하셨던 선한 일을 마치실 것입니까? _____

우리가 전 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의 끝에 다다르지는 못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결국 나를 결승선으로 데려다줄 일련의 단계들(단계들 혹은 처리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결승선에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도표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길 (살면서 배우는 과정)

아동기

십대기 -->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

성인기 -->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 내려갈 때에 우리를 개발시키고,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 골라인, 종착지점 (결과물-유다 24절)

인생은 단계들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끝나버린, 결론 내려지고 행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볼거리에서 회복되면 그는 “나는 이제 모든 병에서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볼거리는 연속적인 병들의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홍역, 독감, 감기들과 많은 다른 병들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자라나기 위한 과정에서 오게 될 겁니다. 죽음만이 병의 마지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계21:4참조).

당신의 인생에서 오직 한 가지 사건만 바라보고 당신이 종착 선에 도착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 “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내 문제들은 다 끝날 거야!” “내일은 내가 운전 면허증을 받을 거야! 이게 나의 최종 목적이야!” “나는 남자(혹은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착하지

못했어.” “만일 내가 내년에 졸업하면 모든 게 끝나게 될 거야!” “내가 직업을 갖게 되면 나의 현재 고난들은 끝나게 될 거야.” “나는 곧 집을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의 걱정도 끝이 될 것이다!”

성인들은 그들이 학교, 가정, 결혼 상대, 직장 등등이 모두 과정의 일부분이고 끝난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비슷한 실수들(45쪽 위를 보시오)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상황도 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도 자라나면서 착실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장소들도 변하고 있습니다(낡은 빌딩은 무너뜨리고 새 빌딩은 세워지는 등등.). 이런 모든 변하고 있는 조건들은 당신이 신경을 쓸 것을 요구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말 3:6)께서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런 변화하는 세상에 살면서, 나는 확실한 경험들(사람들, 문제들, 장소들, 압박들 등을 다루게 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가는 징검다리일 뿐이고— 한 단계는 끝나나 최종적으로 멈추는 장소가 아닙니다. 각 경험은 나를 훈련(문제를 따지게 함)시키고 나를 깨우치고(나를 생각하게 하고) 나를 확대시켜(나의 성격을 형성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줌)주고 나를 효과적(능력 있고 일들과 더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으로 만들어 줍니다. 결과로, 나는 현실의 영역에서 현 세상과 어떻게 관련지어야 할지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사회, 죄, 나의 구주와 하나님의 주권(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과 사건들을 취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롬8:28-29)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창세기 5:22과 5:24에서 우리는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_____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에녹이 인생길을 따라 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며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창6:9)? _____ 창세기 17:1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는 것은 당신이 걷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두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존재를 깨닫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전능하신 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일련의 단계들 (걷는 것)이며 우리가 걸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학교에 가는 것은 당신이 오늘 왜 살고 있는지의 근본 이유는 아닙니다. 학교는 그런 과정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각 단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각 단계는 다음 단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준비되었거나 말았거나 옵니다. 13살 아이는 14살이 되고 또 15살 — 20살—30살 등으로 나이를 먹게 됩니다.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때,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더 좋은 학생으로 만들 것인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

에베소서 2:10에서 성경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8-9절 참조) 그분(하나님)의 _____,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라고 말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처음에 얼마간의 붓질을 한 후에 “걸작은 끝났어! 그것은 완성됐어!”라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술가는 아직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하고 있으며 마지막 붓질을 하기 전까지는 끝낼 수 없을 것입니다(빌1:6참조). 그림은 진행 중에 있고 과정은 모든 붓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대가는 당신의 인생에서 작업하시는 것을 끝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계시고 인생을 변화시키며 걸작을 창조하시고 계십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걸작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변하는 세상, 변하는 사람들, 변하는 장소들과 변하는 문제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삶이 지루한니까?

인생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이미 했어!” “나는 그 농담 전에 이미 들었어!” “그건 이미 먹었던 거야, 뭔가 다른 먹을 것은 없을까?” “또 설거지해야 해? 어제도 더러운 그릇들 씻었고 그제도 했는데!”

같은 것이 계속될 때 우리는 “동일함”에 대해 자주 싫증을 느낍니다. 우리는 새롭다거나 신선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결과로서, 우리는 진행하는 것을 중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일함”가운데서 우리에게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다른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조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행동하고 반응합니다. 사물들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뀝니다. 같은 그릇들이 있지만, 당신이 변화됨으로 그것들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롭고 신선한 진리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요한복음 3:16을 봐야하지? 나는 그 구절을 이미 알고 천 번이나 읽었어!”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낯익은 구절을 취해서 신선하고 새롭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보고 새롭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소중한 구절에 대해 여전히 가르치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목수는 선반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목수가 되지 않습니다. 목수가 아니더라도 선반들을 짓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판들, 망치들, 못들, 톱들 등등을 가지고 일련의 종합적인 작업을 하며 많은 종합적인 경험들을 가진 결과로 목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수가 못을 구부정하게 박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가 “나는 실패했어! 모든 게 끝이야! 내가 이 못을 잘못 쳤으니 이제 더 이상 목수가 될 가치가 없어!”라고 말해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만일 내가 오늘 성공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실패하면 실패자가 되고 모든 게 끝이야!”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인생의 긴 여정중의 한 단계일 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측은하게 생각하기를 멈추고 당신의 죄들과 실패들을 통해 배우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발전을 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가운데서 일 하시기를 멈추셨나요(빌1:6;히13:21)? _____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면 당신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걸을 때에 나는 우로나 좌로(신5:32;수1:7) 우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위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위에 놓는다 - 시139:23-24)

--> 내가 원하는 것(나의 소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위에 놓아서 그것들이 그분의 소망들인지를 알고자 함)

--> 내가 생각하는 것(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위에 놓아 그것들이 맞는지를 알고자 함)

--> 내가 느끼는 것(나의 느낌을 하나님의 말씀위에 놓아 그것들이 옳은지 알고자 함)

“모든 것을 달아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검사하라.” (살전5:21)

[그림] 나 자신

나의 소망들

나의 생각들

나의 느낌들

^하나님의 말씀^

매일은 훈련하고 크게 되며 계발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다! 나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나를 변화시키고 골라인으로 데려다주시려는 과정에 계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심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던 어제와 다르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끝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환경과 상황들(시험들, 문제들 고통들, 실패들, 기쁨들, 슬픔 등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현재 개발하고 계신 사람이고 그분께서 그 일을 마치시면 그것은 결작이 될 것입니다(엡2:10;요일3:2)!

[그림] 살아계시는 하나님

- 1) 변화하는 환경이 나에게 작용을 합니다.
- 2) 나는 인생과 마주하여 인생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 3)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점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 4)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을 하고(창17:1) 그분을 나의 상황 안에 포함시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나를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 안으로 계속해서 데려가십니다(하나가 지나면 또 다른 것으로). 나는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안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모셔 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하나님을 빼고) 그 상황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과 함께(그분을 포함하며 의식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려운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당신을 처하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 상황 안으로 하나님을 모셔오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공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겠습니까? 혹은, 당신은 하나님을 빼고 당신을 돌보아줄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며 초조해 하겠습니까? 당신의 상황에 하나님을 포함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너는 이 시험을 두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지? 너는 모든 게 잘 될 것같이 행동하고 있어!” 세상을 따라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내부에서 뭔가를 하도록 허락하시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롬12:2 참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멋진 행사로 바꾸어 놓도록 허락하시면 당신을 개발하게 도움이 될 것이며 당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상황 한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두십시오!

과정
 로마서 8:28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행사들, 상황들, 문제들)을 통해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결과물
 로마서 8:29
 변화된 사람!
 “그 일에 나의 아들을 보라!”

“그리고 지나게 됐다”(우리가 자주 성경에서 읽게 되는 구절)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활동들, 행동들, 사람들, 사물들, 문제들 등등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당신만이 하나님과 마주보도록 남겨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후서 4:7-8을 보십시오.

주일학교 7학년 11과 (관계편)

주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릴 준비가 되었나요?

이름 _____

나는 의로운 주님의 길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이 유일하게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8장 참조)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이 길을 가는 것을 거절할 것이기에 나는 그들을 돕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9장 참조) 나는 나의 인생 여정이 그리 짧은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는 아직 결승점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작을 완성하고 계시고 최종 작품을 만드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장 참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나는 반드시 그 길을 지켜야 하고 그 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나는 과정을 즐기고 나의 여정의 단계마다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배우는 과정이 가치가 있고 만족을 준다면, 아이는 첫 단계를 즐기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도 계속해서 그래야만 합니다. 비록 내가 나의 배움을 마치지 못했지만, 나는 각 단계와 각 주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날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학교생활을 즐기는 것을 거부해”라고 말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중학교 때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모른 학생은 아마도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모를 확률이 높습니다. 당신은 학교생활을 통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가거나 혹은 더 나쁜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즐기고 있나요? 그 시간들이 즐겁고 알찬 것들로 가득한가요? 아니면 밋밋하고 실패로 가득한가요? 학교에 가는 과정은 친구 혹은 적이 될 수도 있고 기쁨 혹은 끔찍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것 같나요? 당신은 학교생활을 겪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과정을 겪을 것이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삶의 학교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요?(삶을 배우고, 나의 존재를 배우고, 하나님과 내 자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의 관계들) 나는 지금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나요? 나의 관점, 태도, 행동, 반응은 어떠한가요? 청소년기에 나의 인생의 여정은 배우는 것과 배움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한가요?

물론, 배우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배우는 것은 종종 어렵고 노력과 연구와 반복을 필요로 합니다. 배우는 것이 항상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구구단을 외우려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겠지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11절에서 무언가 배웠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 배우기 쉬운 것이었나요?(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_____

나는 배우는 과정을 즐길 것을 기대하나요? 나는 배움의 결과를 즐길 것을 기대하나요?(초등학교 시절 학교에서 어떻게 곱셈을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었지요?) 내가 배우는 과정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씨앗을 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땀을 흘리며 열심히 경작합니다. 그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시간은 열매를 얻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은 땅과 같고 진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진리가 귀에 들리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 배우는 과정을 따라 심기고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그 결과 진리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다 마치고 어른이 되어도 직장이나, 일터, 가정, 병원 어디서든지 간에 배우는 과정에 경험한 모든 것을 적용하기 전까지는 제 자리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집을 짓는 것과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다 완성된 집은

들어가서 사는 기쁨을 줍니다. 지붕이 없는 집에서 산다면 얼마나 웃길까요? 혹은 물이 안 나오거나 난방이 안되는 집, 소금 밭 위에 지은 집.. 이런 것 들도 우습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건물을 짓는데 기쁨이 없어야만 한건가요? 왜죠? 왜 아니죠? 건축가가 “나는 이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웃지 않을 거야, 다 완성되면 그때 가서 웃어야지.”라고 말해야만 하는 건가요?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가족이 바다 여행을 계획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다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실제로 그곳에 가서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준비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그곳에서 겪을 지도 모르는 일에 일부분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바다는 즐거운 곳입니다. 바다를 향해하는 배에 오르는 일도 또한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소풍 점심을 먹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소풍 가서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도 또한 즐거운 일 아닌가요? 왜 그렇죠?

운동경기를 훈련하는 사람(육상 경기, 스케이트 경기, 무엇이든지요)은 반드시 매일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열심히 계획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뼈를 깎는 고생을 한 후에야 금메달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훈련을 계획하고, 훈련하고, 연습경기 하고 땀을 흘리는 일들도 즐거운 일입니까? 왜 그렇죠?

캔버스 위에 붓질을 하며 열심히 작업하는 예술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단조로운 일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작업을 마쳤을 때 오는 그림 그리기의 기쁨을 그는 마지막에만 느끼는 걸까요? 과정을 즐기는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는 오직 그의 작품결과에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배우는 과정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우는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5D 원리가 필요합니다.

① 당신의 무지함을 발견하라. (Discover) : 즉, 여러분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길 위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당신이 있는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고, 당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_____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_____ 못하느니라”(고전8:2)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고 당신이 진정으로 배우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② 지금의 시점,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결정하라. (Determine):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끈기 있게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그 문제들을 처리해 가도록 합시다. (롬12:2)

③ 단계가 올라 갈수록 발전시켜라. (Develop) :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 있는 것처럼, 배우는 데에도 배움통(Knowing Pains)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성장통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몇몇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 없이 학교 생활을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어려운 분투이고,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은 종종 힘들고 다치게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학을 엄청나게 싫어하고, 어떤 학생들은 영어만 나오면 두통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어 보이는 체육 활동조차도, 어떤 학생들에게는 신체적으로 체육을 잘하는 재능이 없어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즐겨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겪는 그 고통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일의 도전을 좌절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말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3:19~20 참조)

④ 각 배움의 단계에서 기쁨을 느껴라. (Delight) : (시37:4,5 23-27) 예술가가 단순한 붓터치 하나에 감동하고 운동선수가 매일의 훈련을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매일의 삶의 도전과 가르침에 즐거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⑤ 다음 단계를 갈망하라. (Desire) : 다음 날, 다음 달, 다음 해, 다음에 경험할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두려움과 걱정 없이 앞을 내다 볼 수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 날에 족하니라.”- 마6:34

여러분은 마치 계단을 올라 가듯이 각 단계를 밟아 나아가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각 단계는 여러분이 더욱 성장하여 그 다음의 것들을 더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3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태도, 올바른 분위기, 올바른 행동**입니다.

1. 올바른 태도

나의 태도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이 시간은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한 시간이다. 나는 그것에 대해, 그 안에 있음에 그리고 그분을 통해 시간이 주어짐에 감사를 드리기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단련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분을 알아 그분을 통해, 또한 그분에 의해 배우도록 원하시는 목적과 과정을 갖고 계신다.” (마11:29)

“네 멍에는 _____ 하시니라.”(마11:30)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_____.”(빌4:19)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_____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후5:20)

이 악한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발표해 보세요.)

2. 올바른 대기(atmosphere)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나요?(요17:11,15; 빌2:15) _____ 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주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고후5:17, 롬8:1) 다이버는 물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위에 공기를 담은 산소탱크가 있는 다이빙 슈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해 있는 신자들이 또한 주 안에 있으면서 하늘의 대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세상 그리고 그 해와 공기, 더움과 차가움, 사람들과 문제들, 죄와 고통, 좋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등등이 존재하는 체제) 너희가 환란(문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_____.”(요16:33) 너는 세상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6장33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_____”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는 신자라면, 그러면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의 공기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살 수 있습니다.

3. 올바른 행동

나는 삶의 여정을 가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올바르게 삶을 영위해 가야만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과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무지함을 위한 지혜와 지식

나의 약함을 위한 강함

나의 외로움을 위한 동행

오늘 까지 나의 발걸음과 말을 위한 지침

내 스스로 열심을 낸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열심

내 스스로의 열심은 생각과 말과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잘못돼 있었네

내가 이런 필요들을 더욱 깨달을수록,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필요를 깨달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나아감에 따라 내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때, 다음의 4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1) 삶의 여정은 경쟁이다.(contest)

삶은 계속해서 옳고 그름, 진리와 거짓의 전쟁가운데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승리와 패배,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고전9:24-27, 갈5:16-23)은 하나님(+성도들+ 천사들)과 사탄(+불신자들+ 악한 천사들)간의 큰 전투를 말합니다. (요16:33, 롬8:37)

2) 삶의 여정은 갈등이다.(conflict)

그것은 말과 지혜의 전투이며, 상처와 아픔, 죽임과 죽이는 것이 존재하는 현장입니다. (엡6:10-18, 고후10:3-5, 갈5:7)

3) 삶의 여정은 걱정이다.(concern)

우리 주변의 사람들,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를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6:25-34, 마10:26-39, 빌4:6-7)

4) 확신과 평강이 있다.(confidence and comfort)

바울이 말하기를 (비록 그가 감옥에 있을 때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 나는 바로 이것을 확신한다.(빌 1:6)”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끄시고 언젠가는 그 일을 마치실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모든 신자들이 모든 상황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 드릴 것을 말합니다. (살전5:18)